‘좋은 것은 지나봐야 안다’는 말씀 가슴에 남아

대연 거사는 현각 거사에게 편지를 돌려주고는 마루에서 일어났다. 영감사 스님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었다. 문고리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것으로 보아 스님이 멀리 출타한 것도 같았다. 현각 거사가 뒤따라 일어나며 말했다.

“상원사로 가시죠. 우리 스님께서 한암 큰스님 회상에서 공부하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남호암골 산길을 이용하여 내려갔다. 승용차를 상원사 가는 길가에 주차해 놓고 사고로 올라왔던 것이다.

“현각 거사님이 큰스님의 편지를 보여주었으니 저도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주겠습니다.”

대연 거사는 현각 거사에게 추사 김정희가 사고에 들렀다는 얘기를 했다. 김정희가 예문관 검열의 관직에 있을 때였다. 그 무렵 김정희는 포사관(曝史官)이 되어 오대산 사고를 들렀던 것이다. 포사관이란 사고를 점검하고 사고에 봉안된 실록을 꺼내 햇볕을 쬐며 거풍(擧風)시키는 소임의 관리를 일컬었다.

대연 거사는 김정희의 〈포사를 위해 오대산을 오르다(曝史登五臺山)〉이란 시를 떠올리며 얘기했다. 특히 그 시 중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법운(法雲; 부처)은 사고 밖을 지켜주고, 선(仙; 산신령)은 사고를 밝게 빛나게 한다’라는 구절이었다. 유가의 선비지만 불가와 도가를 넘나드는 그의 넓고 깊은 정신세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산길을 다 내려와 승용차를 타려고 했을 때 좀 전에 보았던 대학생들을 다시 만났다. 그들은 바위에 앉아서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있었다. 현각 거사가 웃으며 말했다.

“아마 저 대학생들 나이쯤에 아내를 만나 환속했던 것 같습니다. 큰 번뇌랄 것도 없이 그냥 순진하게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현각 거사는 그때의 결정을 실수로 생각하지는 않는 듯했다. 젊은 나이에 가질 수 있는 이성과 감정을 솔직하게 받아들였다는 투로 이야기했다.

“진주 남강 가에 호국사가 있습니다. 26살 때 저는 거기서 학생회와 청년회 지도법사로 있었습니다. 혜암 스님 이상으로 공부하겠다는 마음이 충만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학생회와 청년회 지도법사를 학생들은 하계수련대회를 못하고 돌아갔고요.

저에게는 실망이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도봉스님이 원당암 원주 소임을 정묵스님에게 넘겨주었던 때입니다. 제가 해인사를 떠나려고 큰스님을 찾아가 인사를 드리자 다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새삼스럽게 제 나이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물여섯입니다.’라고 대답하자 ‘적은 나이가 아니구나’라고 말씀하시더니 ‘좋은 것은 지나봐야 안다’고 하시더군요. 가슴을 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황홀하고 행복한 날이었으니까요. 제가 해인사를 나온 뒤, 들리는 얘기로는 큰스님께서 많이 마음 아파했다고 합니다.”

현각 거사가 얘기하는 동안 남학생이 손짓으로 인사했다. 대연 거사도 손을 들어 답례했다.

“좋은 것은 지나봐야 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저 대학생들도 지금이 가장 좋은 시절인 줄 아마도 모를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습기도 합니다만 학생회 지도법사로서 대학생들과 토론하고 고뇌하던 그 시절이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신도들에게 봉사하고 희생하겠다는 젊은 열정과 큰스님 이상으로 공부하겠다는 결의도 충만해 있었으니까요.”

“교무 스님과 티격태격 한 것이 해인사를 떠나게 된 계기가 됐군요.”

“아닙니다. 비록 교무 스님이 신발을 벗어 내 머리에 던졌지만 곧 화해를 했습니다. 스님들은 금세 잊어버립니다. 규율부장 스님이 고지식하게 혜암 스님 상좌니까 버릇을 잡아야 한다고 찰중스님과 합세하는 바람에 큰절에서 원당암으로 물러났다가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규율부장 스님도 환속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원당암을 나온 이후 큰스님을 뵙지 못했습니까.”

“입적하시기 전 큰스님께서 병원에 계실 때 문병을 가곤 했습니다.”

“속가 조카로 보았겠군요. 병원에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큰스님께서는 저를 보실 때마다 속가 식구들이 생각나는 것 같았습니다. 큰스님께서 ‘내가 평생 살생각도 그랬고 현각 거사도 종각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대연 거사가 종각의 안내문을 읽고 있는데, 현각 거사가 말했다.

“큰스님께서는 해인사에서 행자생활을 하신 뒤 사미계를 받고 나서 상원사로 오셨다고 합니다. 그때 한암 조실 스님께서 스님에게 아침저녁으로 종을 치는 종두라는 소임을 맡겼다고 합니다.”

“진주 호국사 신도들이 존경하고 참 잘 사셨는데 뜻하지 않게 물러나 장흥 천관사로 가시어 병사하셨습니다. 입적 안팎의 그 모습도 참 수행자다웠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토굴 규모의 천관사에 든 무일 스님은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고 한다. 그런데 의사의 진단은 간암이었다. 그러나 스님은 아무 내색 없이 토굴로 돌아와 약도 복용하지 않고 정진을 계속했다고 한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만 참선하는 혜암 스님의 가풍을 따라 수행하다가 입적 3일 전부터는 방에 불도 때지 못하고, 음식을 삼키지 못하여 겨우 물만 넘기다가 광주에 있는 병원을 찾아갔는데 의사가 “스님 암 환자 맞습니까” 하고 놀랐다고 한다. 스님은 말기 암환자 같지 않게 입에서 냄새도 안 나고 얼굴이 깔깔하고 맑았던 것이다.

스님은 입적하기 전에 송광사 영선스님 앞으로 유서를 썼다. 송광사와 무슨 인연이 있는지 유해를 화장한 후 조계산에 뿌리고 송광사에서 사십구재를 지내달라고 했다. 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영선스님은 유해를 운구해 와 다비한 뒤, 스님의 유언대로 재를 조계산에 뿌렸다. 사십구재는 원당암의 원각스님과 각안스님이 송광사로 와 송광사 스님들과 함께 지내주었다.

“좋은 분이기도 하고 진정한 수행자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수행자의 본분은 숨을 거둘 때까지 일하고 참선하고 스스로 불 때고 밥 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큰스님이 바로 그렇게 모범을 보이셨고 제자인 무일 스님도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대연 거사는 산죽이 무성한 염불암 가는 오르막 산길에서 잠시 쉬었다. 죽음을 앞두고서도 수행자의 본분을 다한 무일 스님 얘기에 가슴이 먹먹해서였다. 〈계속〉

그림 · 최문정

상원사서 종두소임
화두일념에 빠져
종소리 고르지 않자
“참으로 공부하는 납자”
한암스님이 칭찬해

속가 부모님 어렵게 살았지만 물질적 도움 주지않아
“수행자가 되어 공부하는 것이야 말로 영원한 효도”

하다 보니 회원들의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어줘야 했습니다. 진주간호전문대에 다니는 한 여대생의 일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 여대생이 절에 왔는데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여대생을 자상하게 위로해주었지요. 이후 그 여대생은 저를 따르게 되었는데, 저는 반대로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몇 번 설득을 했습니다. ‘네가 좋아한 건 내가 아닐 것이다. 너는 스님을 좋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니 갈 길로 가야 한다.’고 냉정하고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대생이 항변하는 겁니다. ‘스님은 진짜 이기주의자이시고 보살정신이 없습니다.’ 저는 그 여대생에게 ‘그래 나 이기주의자 맞다. 그러나 이타주의자이기도 하다’고 말하고는 그날 저녁예불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머리가 무거워졌지요. 예불 마치고 나와 머리도 식힐 겸 산책하려고 했는데 그때 지금의 집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날 손잡고 산책한 것이 인연이 되었습니다. 진양호까지 계속 걸었지요. 손잡아 준 것이 미안해서 손 씻어 준다고 또 손을 잡다 보니 부부의 인연이 돼버렸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 구석에는 공부에 대한 열정이 컸습니다. 호국사를 떠나 해인사로 갔습니다. 강원을 네 번째 간 셈이었습니다. 강원생활을 잘 보냈습니다. 그런데 진주 학생들이 하계수련대회를 왔습니다. 학생들이 나를 찾아와 원당암에서 숙식하고 큰 법당 저녁예불에 참석할 수 없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큰절 교무 스님에게 허락을 받으려고 갔지만 ‘안 된다, 그 이유를 대라’고 실랑이를 벌이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교무 스님이 나에게 고무신을 벗어 던진 탓에 부끄럽게도 몸싸움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명진스님의 상좌였던 규율부장 스님은 ‘혜암 스님 상좌라서 그랬을 것이라고 용서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찰중 소임의 스님도 강원생활을 못하게 막아서 원당암으로 물러났던 것입니다. 진주면서 속가 피붙이들을 돌봐주지 못했다. 지금부터라도 피붙이들에게 법문이라도 해주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속가 부모님이 저 세상에서 잘 계시는 것이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큰스님께서는 부모님 살아생전에 어렵게 사시는 것을 알면서도 물질적으로 돕지 못한 사실을 두고, 물질로 하는 효도는 죽었을 때 끝나지만 수행자가 되어 공부하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효도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사람은 승용차를 타고 상원사로 올라갔다. 산길은 한산했다. 등산복 차림의 사내들이 가끔 보일 뿐 오가는 차량도 보이지 않았다. 차창을 열자 오대천 개울물 소리가 가깝게 들려왔다. 아주 큰 천은 아니지만 바위를 부딪치며 흐르는 계곡물은 거침이 없었다.

상원사는 승용차로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사고 입구에서 지척의 거리에 있는데도 자못 멀게 느껴진 것은 그만큼 숲이 울창하고 깊은 산중이기 때문이었다. 상원사 주차장에 도착해서 현각 거사가 다시 얘기를 했다. 좀 전에 미처 하지 못한 얘기였다.

“날마다 큰스님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금생에는 잠깐 큰스님을 뵀지만 정성을 많이 하면 내생에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성을 많이 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큰스님이 주신 화두를 놓치지 않고 큰스님을 기린다는 얘깁니다.”

“진주 수미산에 혜암 스님 기념관을 짓는 것도 정성을 들이는 일입니까.”

“물론입니다.”

계곡물이 합수가 되는 주차장 쪽에서 왼편으로 조금 오르자 상원사로 오르는 계단이 나타났다. 두 사람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상원사는 월정사보다 법당도 작고 경내도 좁았다.

두 사람은 절 깊숙이 들어갔다가 선방 입구에서 돌아섰다. 유독 종각이 눈길을 끌었다. 대연 거사의

현각 거사의 얘기는 혜암 스님의 공식적인 행장에도 분명하게 나오는 사실이었다. 혜암 스님은 그 무렵 한암 조실 스님을 찾아 종두 소임을 보며 봄철 안거를 났던 것이다. 단순히 안거를 난 것이 아니라 한암 조실 스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 혜암 스님이 화두일념에 들어 종을 고르게 치지 못하였으나 한암 조실 스님은 ‘저 수좌가 참으로 공부하는 납자다’라고 크게 기뻐하였던 것이다.

한암 조실 스님의 격려는 혜암 스님이 오대산을 자주 찾게 된 계기가 되었다. 혜암 스님은 오대산의 산내암자와 설악산 오세암, 그리고 태백산 동암 등을 오가며 무소의 뿔처럼 30대를 보냈던 것이다.

대연 거사는 종각 안의 범종으로부터 눈을 떼지 못했다. 범종은 혜암 스님의 체구처럼 단아하고 작았다. 그제야 대연 거사는 범종을 향해서 합장했다. 범종의 모양이나 겉에 그려진 비천상이나 용두 등도 빼어났다. 도자기를 만드는 대연 거사는 안내문을 꼼꼼히 읽지 않고서도 범종이 비범한 작품임을 알 수 있었다.

“상원사에 잘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벽마다 종을 치면서 화두일념에 들었던 큰스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대연 거사는 화제를 돌렸다.

“현각 거사님이 검정고시를 서울 화곡동 관음정사에서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관음정사 주지 무일 스님은 어떤 분입니까. 갑자기 그분이 왜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상원사를 나와 염불암으로 가는 산길을 걸었다. 염불암은 상원사 오대(五臺) 중 서대에 해당되는 암자였다.

“지금은 안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공부하다 죽어라

조계종 제10대 종정 혜암 대종사의 선기가 살아 있는 수행 도량 원당암에서 ‘성불’의 길을 닦아 보십시오. 재가자 선수행의 중심도량 원당암은 영가단에 만년위패를 모심으로써 생사가 둘 아닌 도리 속에서 열반적정을 이루는 수승한 원력의 도량입니다.

정진안내

- 2009년 하안거 결제 5월 9일(음 4.15) ~ 8월 15일(음 6.15)
  ※ 윤5월 관계로 일정이 앞당겨졌습니다.
- 2009년 하안거 7일 용맹정진 7월 22일(음 6.1) 03시 ~ 29일(음 6.8) 03시
- 철야 용맹정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동 안 거 결 제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 산 철 결 제 음력 2월 1일 ~ 3월 29일 / 음력 8월 1일 ~ 9월 30일
- 만년위패봉안대불사 합동천도재
  매년 설날, 중양절(음력 9월 9일), 백중, 추석, 매월 음력 15일(아미타재일)

해인사원당암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www.wondangam.org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